

개 회 사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2010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에서 와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장님, 유경문 지방재정학회장님, 정갑철 강원도 화천 군수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함으로써 이제 제5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과 일천한 기간 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해 왔으며,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10년도 현재 1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민선 4기에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선분권, 후보완’의 기조 하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을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신설 등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이 후 감세조치, 재정지출 확대 정책, 지방예산 조기집행 및 지역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감한 지방채 발행 시행 등 적극적인 극복방안으로 이를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복 과정에서 최근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 위기에 따른 더블딥 현상, 2009년 지방채 발행 및 지방공기업 채무 급증, 인구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행사 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민선5기 지방 재정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재정은 성숙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인식에 따라 향후 민선 5기 지방 재정 건전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에서도 불철주야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가 「민선 5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인 것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 또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시의적절하게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방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지방재정이 건전하고도 자주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수달, 연꽃, 산천어와 같은 아름다운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 관광의 고장인 이곳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대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행사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화천군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장을 가득 메워주신 지방재정 발전의 진정한 주역이신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7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국현

축 사

오늘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정환경의 고장 강원도 화천군에서「2010년도 지방재정세미나」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과 회원님,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 이번 세미나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정갑철 화천군수님, 그리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는 지방재정 규모가 14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수의계약 공개제도, 복식부기제도 전면 시행 등 회계·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축제·행사성 경비(3,000억원)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효율화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과대청사 및 청사 에너지 낭비, 일부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한 선심성 경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 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대주제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외국의 재정건전화 조치 사례,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세션 토론 주제로 선정된 지방채 제도 개선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분석도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많은 대안과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안전부는 학회·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구현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지방재정발전은 물론 상호협력·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화천에서 보내시는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재정공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계국장 정현율

환 영 사

먼저, 2010년 지방재정 세미나가 산, 호수, 강이 어우러진 산천어축제의 고장 화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크게 애써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유경문 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정현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그리고 발제와 사회, 토론에 참여하시는 재정전문가 여러분, 각 시·도의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완전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등 재정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수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자체수입 발굴의 한계로 국가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등의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제정 50년 만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

이양이 좀더 확대되어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재정세미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된 ‘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이 공식후보도시로 다시 선정되어 내년 7월에 최종 개최지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쏟아 온 우리의 땀과 노력이 이번에는 반드시 평창의 승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방재정 세미나를 축하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7
강원도 정무부지사 조 용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선5기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

I.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2010년도 지방재정세미나를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2010년도 지방재정세미나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의 맹형규 장관님과 행선안전부의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강원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이광재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화천군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정갑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세미나가 매년 개최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된 민선5기의 출발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논의 할 때는 항상 지방재정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충실 했다면 그 동안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들은 더 많이 개선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도부터 재 실시되어 이제는 성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거의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주요한 과제로 지적 되는 것은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출(세출)을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은 지역주민의 복지 또는 후생(welfare)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또는 후생의 증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지역주민들의 행복(happiness)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겠으나, 티벳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 또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완화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의 기본적 역할이자 목표는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극대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들이 그 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민복지 향상이며, 물질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켜주는 것이며,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지훈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이는 '혼(魂) · 창(創) · 통(通)’이라고 합니다.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합니다.

이지훈은 그의 책에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며,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을 가지는 것” 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혼(魂)이 씨를 뿌리는 것 이라면, 창(創)은 거두는 것이며, 창(創)은 실행이라고 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운영 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 인가에 대하여 ‘혼(魂)과 창(創)과 통(通)’의 개념을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올바른 혼(魂), 비전, 신념, 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청, 시청, 군청 및 구청을 방문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지향 목표나 비전 등을 청사 입구에 잘 적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나치게 장미 빛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비전)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있어야하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은 당선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공약을 내세우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과연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임기 중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신념, 비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행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접하다보면 적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가 지향해야할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상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각 지방정부의 활동 목표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創)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재 실시 된지 20년이 되 가면서도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 문제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원배분 문제, 총 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간의 지나친 차이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의 괴리 문제, 지방세 부과 원칙의 모호성과 지방세체계의 복잡성 문제, 지방교부세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문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비지출의 낭비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자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의원들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창(創)의 정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보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의 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일선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창조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세제나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지방재정 운영상의 예산운영낭비 억제 방안이나, 재정건전화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제시 하면, 학계나 연구기관들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수용하여 제도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입법화시키고 실천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모색은 물론,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창(創)의 일은 혼(魂)에서 시작됩니다. 즉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고자하는 목표이자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에 대한 비전이자 꿈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자들과 과련 공무원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이 비전에 대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이 지역주민들의 ‘행복(Happiness)’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크게 해소되거나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 호화청사 건축 문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과도한 봉급인상문제,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시찰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여행문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호와 집무실 문제와 고급승용차 교체 문제, 낭비성 과시적 지역 행사 및 축제문제, 비효율적 지역 투자문제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운영이나 지방재정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해관계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의 문제, 즉 (소)통(通)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通)”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 입니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입니다.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전체가 나아가 할 비전을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전 국민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혼(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소)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소)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상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가능한 많이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소)통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너무 대형화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21세기 개방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을 통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를 함께 만들고 관련 법규를 함께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과 관계 문제에서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가 해결 된다면 지방재정운영의 상당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 시 하는 대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재원의 배분 문제나,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중의 조정문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문제,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문제 등 도, 국가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각 지방정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기 어렵다고들 말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풍족하면 지방자치가 잘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까요?

아닙니다 !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재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 각종 전시용 행사나 낭비적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 돈이 없다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멀

평한 나무를 뽑아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한 계절도 못가는 꽃을 길가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의 꽃에 물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관리한다고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학교 급식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많으며,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힘들게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차지단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눈에 보기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많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년 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쓰기위하여 멸절한 보도 불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멸절한 차를 값비싼 고급승차로의 교체 합니다. 적정규모 이상의 호화로운 청사 건축,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외유성 해외 시찰 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위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 이전에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들의 행태와 의식문제가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려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및 관련 공무원들이 혼(魂)·창(創)·통(通)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부과된 지방세도 제때에 내기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감히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꼭 필요치 않은 외유성 해외여행을 하며, 꺼리낌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지방재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행사를 지방자치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진짜 주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를 줄여야하며, 지방의원들은 행정부의 예산낭비를 주민들 대신하여 철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봉급과 수당을 각종 명목으로 올리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 그리고 그 지방공무원들이 술선수범하여 근검 절약 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이고, 주민들이 그러한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위기의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고, 중앙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방정부에게 지원해 주어도 지방정부가 낭비를 하는 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9년이 지난 현재 지방재정규모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구조는 이전재원이 비대해진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저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난 몇 년간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빚을 내어 재정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GDP 대비 정부채무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부채무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경우 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또 다른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채무는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빚을 내어 소비하고, 이 빚을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일 것입니다.

금번 지방재정세미나의 대주제는 「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재정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 ‘재정적자 비상’ ‘빚더미’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적인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글썽라는 의문표를 붙여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09년 말 지방채발행 규모가 25.6조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12%수준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대비 100% 이상 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전체 채무가 우리나라 GDP와 대비할 경우 33.8% 수준이나, 이중 지방 채무는 2.4%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채무만 보면 아직은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지방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름으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빚을 내기는 쉬워도 갚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빚을 내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지 빚은 빠르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부채를 감당 못 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정부의 부채는 후 세대의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교육이나 사회개발, 지역개발, 경제개발 등 지출할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손쉬운 빚내는 방법으로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하수에 속 합니

다.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돈이라면 납세자들을 설득하여 세금을 더 거두던가 그러한 역량이 안 된다면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아직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나, 만약 부채가 누적되어 과도하게 되면 또 다른 경제위기상황이 발생 할 경우 정부운영의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위기 극복이 매우 어렵게 됨으로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세입 내 지출이라는 고전적 재정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무가 급증하여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약 8조원 규모 였으며, 지방채 잔액 기준으로 2007년에 18조원에서 2008년에 19조 2천억 원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약 25조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407조원 (국가예산 292조원 대비 139%) 으로 지방채무가 국가채무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광역시는 채무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말 기준 지방 채무는 약 19조원 2천억 원으로 지방예산 186조원 대비 약 11% 수준임에 비하여, 부산광역시 2.6조원 (예산대비 35%), 대구광역시 1.8조원 (예산대비 39%), 인천광역시 1.5조원 (예산대비 26%), 광주광역시 0.8조원 (예산대비 29%) 등으로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급증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급증문제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관리 강화 및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이라는 주제로 2010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 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